가부장적 개발 내셔널리즘과 낭만적 위선의 균열

: 1960년대 『여원』의 연애 담론 연구

김지영 *

차례

1. 서론
2. 청년 주체와 낭만적 사랑의 균열
3. 주부의 국민화와 혼종적 근대성
   3.1. 주부, 혹은 국민으로서의 여성성
   3.2. 反전통화의 원심력과 재전통화의 구심력
4. 낭만적 사랑의 위선과 자유부인의 재의미화
   4.1. 자유부인, 혹은 젠더화된 근대성의 잉여
   4.2. '취미 연애'의 대두와 낭만적 위선의 노출
5. 성과학/성담론과 존속의 알리바이
   5.1. '성'이라는 도발, 혹은 근대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성 인식
   5.2. 낭만적 위선의 균열과 부정을 가장(假裝)한 존속
6. 결론

〈국문초록〉

1960년대 초반, 『여원』은 4.19의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청년 세대의 발언을 통해 '자아'와 '자유'의 이념에 바탕을 둔 '연애'의 자율성을 주창했지만 실제 역사나 경험과 유리된 무균질적인 이상은 군사 권력에 의해 국가주의가 부활하면서 곧바로 쇠잔해 갔다. 군사 정권의 개발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면서 『여원』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기반하여 주부 역할을 강조했고, 사랑과 결혼의 근대화는 '자유'에 선행하는 '덕성'의 호명을 통해 국가 발전의 기획 내부로 통합되었다. 전통을 배격했던 근대화 권력이 여성의 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부분적, 선별적으로 전통을 재호명함으로써,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서구 근대와 전통은 여성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율배반적으로 접속했다. 전통비판과 개발주의가 근대화를 추진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했다면 여성성의 가치로 재호명된 덕성은 물질적인 근대의 비인간적 질주를 통어하는 구심력으로 여성을 강박했다. 여성의 관용과 희생의 이름으로 호명된 전통 윤리는 개발 근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적인 욕망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사적인 삶과 공적인 개발을 갈등 없이 통합하는 가부장적 개발 내셔널리즘 체제를 성립시켰다.

가부장적 근대화가 추진되는 한편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자유부인 담론이 비등했다. 1960년대의 자유부인은, 戰後의 그것과 달리, 성욕과 물욕을 긍정하는 자본주의화 된 세계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성역할에 대한 저항과 거부의 의지를 함축했다. 1950년대의 자유부인이 아프레걸을 모방한 존재였다면, 1960년대의 자유부인은 젠더화된 근대성의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일그러진 정상성을 반증하는 경계인들이었다. 자유부인 담론의 이면에는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은폐했던 젠더 억압의 가부장적 폭력성과 그에 편승한 타산적 편의주의에 대한 적나라한 자각이 노출되고 있었으며, 담론의 통합적 권력에서 벗어나는 이질적 사고와 경험들이 복잡하게 횡단했다. 낭만적 사랑의 이념에 충실했던 50년대의 '아프레걸-자유부인'과 달리, 60년대의 자유부인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경험적 회의나 순결하고 신성한 사랑의 이념이 지니는 허위와 위선의 노출 속에 존재했으며, 따라서 60년대 자유부인 담론의 이면에는 성적 순결성과 혼인제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에 여성 스스로가 소망을 일치시키는 자발적 동화가 지배적인 가운데, 매체의 '지식-권력'이 선택했던 것은 가부장 부재의 불안의식보다는 강력한 가부장에 대한 의존심리였다.

『여원』이 독보적으로 실어날랐던 성 담론은 본원론적 과학진단을 가장하여 가부장적 성역할의 구획과 젠더화된 국가주의를 보조했다.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과감하고 도발적인 성격을 가속화했던 성 담론은 표면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표준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상의 저항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반발을 보충함으로써 오히려 지배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데 복무하는 존속의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의 위선에 대한 의식적 자각과 성 담론이 제기한 미시적 균열들은 아프레걸론, 자유부인론으로 집약되는 가부장적 통제의지와 그로부터 빚어진 숭고한 사랑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1970년대 청년문화의 저항의식을 매개하는 촉매의 하나가 된다.

핵심어 : 1960년대, 여성잡지, 연애담론, 『여원』, 가부장성, 근대성, 성 담론, 국가주의, 4.19, 청년문화, 중산층, 낭만적 사랑, 숭고한 사랑, 섹슈얼리티. 자유부인, 아프레걸, 불륜, 재전통화, 여성교양.

1. 서론

이 글은 여성잡지 『여원』의 연애담론을 검토함으로써 1960년대 근대화 담론이 젠더 및 가부장제와 어떻게 접속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성, 사랑, 결혼과 같은 일상의 문제가 국가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시대적 요청 속에 어떻게 구획되고 조정되었으며, 여성의 생활과 욕망을 조율하는 지식과 권력이 어떠한 문화정치학을 마련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실제 욕망과 생활이 당면한 사회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 어떠한 정향과 질곡을 마련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는 4.19의 시민혁명이 군부독재로 이어지고, 근대화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경제개발이 가장 긴급한 목표로 명시되면서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던 시기였다. 빈곤탈출을 위한 단결이 지상목표로 강조되었던 시기, 경제개발과 산업화, 반공주의, 민족 정체성 확립이라는 절대적 슬로건은 식민지 예속과 전쟁에서 갓 벗어난 대중에게 현실을 이해하고 장래를 계획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체계를 제공했다. 민족적 단결

의 구호는 한일협정 반대 시위와 베트남 파병으로 발발한 징병제의 강화, 전 사회의 군사화 등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은닉하면서 강화되었다. “잘 살아 보세”나 “하면 된다”와 같은 표어가 당면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가린 채 강력한 힘으로 대중을 견인하는 설득력을 발휘하면서, 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보다 폭넓은 대중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대중소비사회로의 변화가 진척되었던 개발 독재의 시기였다.

『여원』은 1960년대 여성담론을 선도했던 가장 인기 있는 잡지였다. 1960년대는 연평균 4000여종의 출판물이 출간되는 서적 양산의 시대였고[1], 4.19 시기 『사상계』의 영향력에서 알 수 있듯 잡지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잡지의 종류도 다양화되어 기존의 월간지뿐만 아니라 주간지와 계간지가 등장했고, 『주부생활』, 『가정생활』, 『美의 생활』, 『가정의 벗』, 『여상』, 『신여상』, 『여성동아』 등 여성지 또한 다변화되었다. 1955년 발간되어 이미 “여성잡지로서 독보적인 면모가 躍如하다”[2]는 평가를 받았던 『여원』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압도적인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한 여성지였다. 한국사회통계센터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1960년대 중반까지 『사상계』와 『여원』은 잡지 부분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줄곧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3] “『여원』이 젊은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은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닐까 한다.”[4]라는 신문사의 진단이 있을 정도로 『여원』의 인기는 높았다.[5]

---

1) 임유경, 「지식인과 잡지 문화」, 김성보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1960년대』, 창비, 2016, 85-110쪽.
2) 「大衆雜誌의 危機 (下)」. 《경향신문》, 1957년 7월 22일.
3) 임유경, 앞의 글, 89쪽.
4) 「반사경」, 《경향신문》, 1962년 8월 7일.
5) 당시의 신문기사에서는, 綜合誌(종합지)로서는 『사상계』, 『신사조』, 문학지로는 『현대문학』, 『자유문학』, 여성지로는 『여원』을 대표 잡지로 꼽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활발한 잡지계」, 《동아일보》, 1962년 11월 30일 ; 「잡지진단」, 《동아일보》, 1962년 8월 24일. 1966년 한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이대생들이 정기구독하는 잡지의 순서도 『여원』, 『現代文學』, 『主婦生活』, 『女像』, 『新東亞』순으로 『여원』이 단연 1위였다. 「梨大讀書實態」, 《동아일보》, 1966년 9월 27일.

여성 문화를 선도하는 여성지로 자부했던 만큼 『여원』은 사랑과 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원색 화보, 문예, 생활정보, 독자상담 등 지속적으로 연재되었던 기본란 외에 시의성을 지녔던 기사, 특집, 교양연재, 공동연구에서 다루었던 주제 대부분이 연애, 결혼, 부부애, 성, 살림, 가족, 가풍 등 남녀의 결합과 가정을 둘러싼 사적 영역의 문제들이었다. 결혼의 예절과 조건, 살림의 설계, 육체와 멋, 사춘기와 성, 내조와 모성 등 오늘날 여성 고유의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친밀성의 문제들이 특집, 기사, 연구의 이름으로 집중 조명되었고, 『여원』은 이 같은 사적 영역의 담론을 주도함으로써 젠더의 공통감각을 만들어나가는 유력한 매체였다. '연애'는 이 같은 사적 영역의 담론들을 응집하는 소재였다. 성과 사랑, 결혼과 가족의 문제가 접속하고 관통하는 지점으로서, '연애'는 당대 친밀성의 감각과 통념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건들과 어떻게 접속하고 기능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1960년대 발간된 『여원』의 연애담론을 통해 60년대 '지식-담론'이 여성의 사고와 육체 및 성, 사랑, 결혼을 둘러싼 사회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의미화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60년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일반의 의식이 어떤 문화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었으며, 4.19와 5.16을 거친 개발 독재의 시기, 한국 사회가 성, 사랑, 결혼과 같은 친밀성의 영역을 어떻게 조율하고 스스로를 젠더화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1960년대 잡지 『여원』에 주목한 선행연구로는 2008년 한국여성문학회에서 발간한 『여원 연구』(국학자료원)가 독보적이다. 여성문학의 흐름을 매체 연구로 확장한 선구적인 연구서로서, 『여원 연구』는 여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 매체가 실어나르는 담론과 문학 작품을 아울러 고찰하여, 매체를 통한 젠더 근대성 연구의 한 기원을 이룬다. 특히 아프레걸 담론의 의미(김은하)[6]나 주부가 하나의 제도로 탄생하는 과정(김현주)[7], 여

6)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여원 연구』, 국학자료원, 2008, 244-272쪽.

성교양의 배치에 대한 연구(김복순)[8], 1960년대 연재소설 연구(송인화)[9] 등은 사랑과 결혼의 문제가 사고되고 언술된 방식의 일단을 밝힘으로써 본고의 관심사와도 긴밀히 접속한다. 이들 연구는 戰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삶을 규제한 근대화, 反근대화, 재전통화라는 서로 다른 벡터들의 독특한 결합을 밝혀 줌으로써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도 큰 시사점을 주었다. 그러나 김은하, 김현주의 연구는 1950년대 자료에 국한되어 있고, 1960년대를 다룬 송인화의 연구는 담론이 아니라 소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는 연구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김복순의 여성 교양의 배치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여원』의 세대론과 국가론 등의 측면에서 본고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초점 대상이 교양 일반이라는 점에서 본고와는 다른 논점을 지닌다. 그 밖에 1960년대 『여원』을 다룬 연구로 장미경[10], 최경희의[11] 연구가 있다. 장미경의 연구는 근대적 성별 분업체계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선구적으로 자료를 고증하였으며, 최경희의 연구는 다수 여성지의 여성담론 속에 내재한 전통과 근대화의 혼융을 설명했다.

본고는 이상 선행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1960년대 『여원』의 연애담론을 집중적,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자료 자체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고증을 바탕으로 당대 담론 자체의 흐름을 규명하는 데 천착함으로써, 외적 담론의 렌즈를 통해 자료를 선별하고 기능적으로

---

7)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와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여원 연구』, 국학자료원, 2008, 56-82쪽.

8) 김복순, 「전후 여성 교양의 재배치와 젠더 정치」, 『여원 연구』, 국학자료원, 2008, 23-55쪽.

9) 송인화, 「1960년대 연애소설 연구」, 『여원 연구』, 국학자료원, 2008, 339-373쪽.

10)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142-181쪽.

11) 최경희, 「1960-1970년대 여성지를 통해 본 근대화의 젠더 양상 연구-『여원』, 『여상』, 『주부생활』에 나타난 근대화의 혼종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313-329쪽. ; 최경희, 「1960년대 여성지를 통해 본 '교양의 레짐' 연구-『가정생활』, 『여상』, 『여원에 나타난 전통, 국민, 감정의 동원 체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8, 우리문학회, 2015, 89-112쪽.

활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당대의식을 증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광범위한 자료의 실증적 조사와 검토에 토대를 두는 이 같은 작업은 기존 연구의 미시적 오류들을 수정하고, 당대 담론의 실질적 실제를 드러냄으로써 1960년대 문화와 문학 및 기타 유관 연구들에 사실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발간된 잡지 전체를 살펴보는 작업인 만큼 본문은 196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일어나는 담론의 시간적 변화를 염두에 두며 진행하되, 잡지가 지니는 이질혼종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시간적 변화 그 자체보다는 두드러지는 문제 영역과 그에 접속하는 담론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연애와 같은 친밀성의 담론이 단시간에 동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장기지속의 성격을 띤다는 점, 그러면서도 4.19와 5.16, 제 3공화국의 탄생과 개발 독재의 가속화 등 시대적 변화와 함께 호흡하는 운동성이 그 안에 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과 담론을 함께 고려하는 구성방식은 일정한 설득력을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2. 청년 주체와 낭만적 사랑의 균열

1960년대 초반은 아프레걸 담론을 거쳐 마련된 숭고한 사랑의 담론이 일정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시기였다. 주지하다시피 아프레걸이란 신조어는 戰後의 유례없던 여권 신장과 심각한 가난, 미국 문화의 틈입 등으로 야기된 사회문화적 혼란을 여성에 대한 비난과 여성 훈육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일종의 알리바이로 기능한 어휘였다. 전후 혼란상 속에서 여성을 규제하는 담론은 불분명한 현실의 위기와 불안에 구체적이고 이해가능한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망스런 미래의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였다. 따라서 아프레걸은 혼란을 잠재우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의 편리한 표적으로 기능했다. 아프레걸에 대한 비판은, 사랑이란 순수하고 순결해야 하며 육체를 잊어버린 드높은 정신의 차원

에서 진정한 참됨을 발견해야 한다는 숭고한 사랑의 담론으로 쉽게 연계되었다.[12] 1950년대 후반에 공고화된 이 숭고한 사랑의 이데올로기는 1960년 초반까지 엄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60년경까지 사랑과 결혼의 문제를 다룬 『여원』의 기사들은 순결하며 정신적인 사랑을 역설했다. 1960년 『여원』은 「번민하는 사춘후반기」(1960년 3월), 「첫사랑은 인생을 어떻게 지배하는가」(1960년 4월), 「애정의 공백지대」(1960년 9월) 등의 연애 관련 특집들을 기획했는데, 대부분의 글들에서 기본적인 논조는 영원한 사랑의 수호를 위한 인내와 희생이었다.[13]

사랑을 논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정신성과 영원성이었다. 여성의 미를 논하는 칼럼에서는 육체의 아름다움보다는 고독한 사색과 지성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화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으며,[14] "인간의 애정은 반드시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이 앞서야"[15]한다는 생각이 다수의 칼럼에서 반복되어 나타났다. 성욕은 사랑과 엄격히 구분되어야 했다.[16] 혼전의 육체적인 관계는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

12) 아프레걸의 의미와 1950년대 『여원』의 연애담론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은하, 앞의 논문. ; 김지영,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의 연재소설 연구 : 연애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여원』,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회, 2013, 347-384쪽.

13) 「번민하는 사춘후반기」(1960년 3월) 특집에서는 사춘기를 지나는 청년남녀의 이성교제와 유혹의 위험을 경계하면서 특히 처녀성의 수호를 강조하는 순결중심적 성담론이 펼쳐졌다. 이성교제란 유혹적인 일이지만 "장래는 스스로가 보험하여야 한다"(「(종합연구) 번민하는 사춘후반기: 쎅스. 어필에 설레는 순정」, 『여원』, 1960년 3월, 230-233쪽)는 점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언술방식은 아프레걸을 경계하는 50년대 후반의 담론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다. 같은 호 특집 「첫사랑은 인생을 어떻게 지배하는가」(1960년 3월) 역시 연애란 정신과 육체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강조하며 특히 여성의 육체 관리를 주의하는 계몽적 논지가 주조를 이루었다. 이 특집에서는 첫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수사적 칭송 아래, 과거의 애정은 고백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도 개진되었다. 조풍연, 「과거의 애정은 고백해야 옳다」, 『여원』, 1960년 4월, 90-91쪽. ; 전숙희, 「과거의 애정은 망각하라」, 『여원』, 1960년 4월, 92-93쪽. ; 김기두, 「사랑은 영육의 승화된 꽃」, 『여원』, 1960년 4월, 94-96쪽.

14) 김은우, 「신 미녀론」, 『여원』, 1960년 4월, 210-213쪽.

15) 박영준, 「애정의 본질」, 『여원』, 1960년 9월, 185쪽.

라도 야합 이상일 수 없다고 천명되었고,[17] 처녀성과 순결은 여성이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매력'의 상징으로 미화되었다. "처녀들이 지닌 가장 중요한 매력이란 실상은 완전히 성숙한 여성이면서 아직도 쎅스의 순결을 지키고 있다는 데에"[18] 있다는 식으로 여성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는 언술이 공적 계몽의 논리로 거리낌 없이 등장하곤 했다.

사랑의 영원성은 혼전의 관계에서 육체를 제거한 것과 달리, 기혼의 관계에서는 육체적 봉사를 강조하는 역설을 낳기도 했다. 1960년 9월에 특집화된 〈애정의 공백지대〉에 실린 칼럼들은 부부 간의 각종 위기를 진단하면서 대부분의 문제 원인을 아내의 육체와 애정에 돌렸다. "영원성이 있는 애정만이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또 귀한 것"[19]이라 칭송하는 담론의 지배 아래, 사랑의 영원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남편의 무관심을 이겨낼 수 있는 아내의 육체적 노력이 필요했다. 남편의 외도 징후 발견법을 안내한 칼럼(「바람의 징후발견법」)에서는 다양한 외도 발견요령을 나열한 후, 결론적으로 아내의 매력 결핍 개선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20] '틈 없는 부부살이'를 역설한 한 칼럼 역시 아내의 애정에 남편의 권태와 외도의 책임을 돌렸다. 남편의 무관심에는 아내에게 그 절반의 원인이 있다고 강조한 이 칼럼은 그와 같은 무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종의 위치에서 받들어야 한다"[21]는 일침을 가했다.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도하는 남편이 아니라 그러한 남편을 둔 아내의 육체와 봉사였던 셈이다.

이처럼 "결혼은 연애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22]하는 낭만적 사랑의 이

16) "성욕이 곧 사랑 그 자체는 아닌 것", 김기우, 「쎅스의 排卵論」, 『여원』, 1960년 8월, 240쪽.
17) 위의 글, 같은 곳.
18) "사춘기 후반 여성들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은, 머잖아 누구에겐가 바칠 그녀들의 처녀성을 아직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깨끗이 순결을 지켜가는 꿋꿋한 그녀들의 마음가짐에 있다 할 것이다." 「(종합연구) 번민하는 사춘후반기: 쎅스 어필에 설레는 순정」, 『여원』, 1960년 3월, 232쪽.
19) 박계주, 「틈 없는 부부살이」, 『여원』, 1960년 9월, 192-195쪽.
20) 이하준, 「바람의 징후 발견법」, 『여원』, 1969년 9월, 196-201쪽.
21) 박계주, 앞의 글, 193쪽.

념은 여성의 육체를 규제하고 여성의 행위와 정신에 그 영속의 책임을 부과했다. 그리고 사랑을 영속시키는 희생과 관용을 고귀한 가치로 미화함으로써 숭고한 사랑의 이념을 공고화했다. 그리하여 '성=사랑=결혼'의 관계를 추구하는 낭만적 사랑의 이념은[23] 사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동질적인 문화적 상징체계 속에 통합시켜 갔다. 이 상징체계는 여성의 육체만을 규율하고 희생과 관용을 역설함으로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갈등 없이 결합했다. 남녀의 위계는 일고의 여지없는 자연의 일부로 무의식 깊숙이 뿌리박혔다. 한국여성들의 소극성과 무교양이 가부장적 권위의식과 경제적 위기상황, 열등한 여성의 위치 등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남성 본위의 비평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에서조차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은 남성이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적극적인 지도와 밑받침이 돼 주어야 할 것"[24]이라는 데서 끝날 정도로, 남녀의 위계는 당위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숭고한 사랑의 강고한 이념은 4.19를 거치면서 현저히 증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뚜렷한 저항에 부딪힌다. 4.19를 4.19혁명, 4.19의거, 4.19항거 등의 어휘와 더불어 "4.19반항"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 역사적 사건은 청년 학생들이 주도한 일로 일컬어졌고,[25]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비등했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여원』 또한 4월 혁명이 지난 여름부터 표 나게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싣기 시작했다. 1960년 7월 「제 2공화국의 여성」, 8월 「반항하는 청춘을 보라」, 1961년 3월 「요즘의 연애는 패륜한가」, 1961년 4월 「새로운 가풍의 창조」 등은 세대의식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특집들이다. 특집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여원』은 청년 세대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적 관점보다는 연애와 가정 등 사적이며 감성적인 차원의 영역에서 접근했다.

---

22) 위의 글, 194쪽.
23)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 황경미 역,『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9.
24) 노라 노, 「남성본위의 불만이다」, 『여원』, 1960년 3월, 116쪽.
25) 실제로 4월 혁명 후 8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00회를 상회하는 시위가 이루어졌으며 시위의 주체는 청년세대가 압도적이었다.

이 특집에서 청년세대들은 무엇보다도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강조했다. 미국의 비트 세대, 영국의 앵그리 영맨 등의 사례를 예시하면서 이들은 기성세대 문화를 부패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몰아붙였다. 기성세대의 문화는 "비논리의 폭력", "부패된 기존 정권에의 아부"[26] "여성에게 불리하게 마련된 도덕의 기준"[27], "가족제도의 봉건성", "반공이라는 절대 정책 밑에 강제된 정신"[28] 등의 명목으로 비판대에 올랐으며, 4.19는 그와 같은 기성의 부패와 불합리에 저항한 정당한 의거이자 혁명적 사건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기성세대의 반대편에서 새 세대가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자아'와 '자유'였다. '개성'은 이 세대가 주창하는 생명의 중심이었으며, "자기가 만든 최선의 모랄에 기준을 둘 것을 주장하고 개성을 발전"[29]시키는 것이야말로 참 삶의 방법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부정과 인간불신의 시련"이 불가피했고, 이 같은 시련은 "새로운 의미의 휴메니즘을 확득하게 된다는 가능성"[30]의 신호로서 긍정적으로 이해되었다. "아이들의 반항의 내면에는 어른들의 영향이 그 직접 원인이"[31] 있다고 할 만큼 시련의 원인은 기성세대에 있었고, 그런 만큼 그에 대한 저항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만만치 않았다. 「암탉이 울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과감한 제목을 앞세운 한 필자는 여성 차별적 도덕 기준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세대 간의 새로운 이해를 요구했고, 같은 특집에 실린 「청춘발산을 억제하지 말라」에서는 부자나 모녀의 사이도 "하나의 우정으로 맺어져야 한다"[32]는 과감한 제안이 제기되었다. 청년 세대의 집단적 저항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청춘에 책임지는 자세'[33]의 발현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26) 홍사중, 「신세대의 거부권」, 『여원』, 1960년 8월, 213쪽.
27) 신희수, 「암탉이 울어도 망하지 않는다」, 『여원』, 1960년 8월, 219쪽.
28) 천상병, 「청춘발산을 억제하지 말라」, 『여원』, 1960년 8월, 226쪽.
29) 신희수, 앞의 글, 219쪽.
30) 홍사중, 앞의 글, 214쪽.
31) 이청기, 「뒷골목으로 가는 청춘」, 『여원』, 1960년 8월, 222쪽.
32) 이청기, 위의 글, 223쪽.
33) 천상병, 앞의 글, 1960년 8월, 227쪽.

충실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일체의 사회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진정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청년 세대의 기세에 대한 기성세대의 시각 또한 온건하고 긍정적이어서, 낡은 탈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세계에 뛰어들어 같이 이해하는 자세, "강압적이 아닌 우정 있는 조언"과 "밀어주는 방법"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34] 역설되기도 했다.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사랑과 결혼의 문제를 조망하는 태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사랑의 정신성, 순결과 영원성을 강조하던 언술은 연애와 결혼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청년들의 새로운 가치관에 자리를 내어줘야 했다. 1961년 3월 「요즘의 연애는 패륜한가」라는 특집에서 첫 번째 칼럼으로 게재된 천상병의 「연애는 결혼의 전제가 아니다」는 연애와 결혼의 관련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제목과 같은 의견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청년들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애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를 아주 문란하고 위험한 불장난으로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도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쪽이냐 하면 건전한 사고방식인 것이다. // 우선 무시되었던 자아를 발견한 것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기존 권위에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인간이 자유이어야 한다는 가열한 젊은 세대의 갈망은 그만큼 이유가 있고 타당한 것이다. (…)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기존율에 억압되는 일이 없이 순수한 자아의 자연대로 살겠다는 의욕일 것이다. //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누군가가 만들어낸 기존적인 풍속습관인 동시에 우리의 머리 속에 고질화된 관념일 뿐이지 절대는 아니다.[35]

연애, 결혼의 결합과 숭고한 사랑을 역설했던 기존 사랑의 담론에 정면 도전하는 이 발언의 동력은 역시 '자아'의 가치와 '자유'에 대한 신념이었

34) 원선희, 「불연속선의 조정이 필요」, 『여원』, 1961년 4월, 146-147쪽. ; 김웅, 「청춘의 순종과 반항」, 『여원』, 1960년 8월, 242-247쪽.
35) 천상병, 「연애는 결혼의 전제가 아니다」, 『여원』, 1961년 3월, 101쪽.

다. "아무에게도 구애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발판으로 구성"[36] 되는 "자아"가 새로운 도덕의 기준이 됨으로써 청년 세대는 기존율의 압박에 저항하는 실천의 동력을 확보했다. 많은 청년 필자들이 이처럼 '자아'의 '자유'에 입각한 사랑과 결혼을 주창했다. 사랑이란 미완성품인 '자기'가 '자기완성'에 이르는 길임이 강조되었고,[37] 참된 사랑을 위해서는 기성의 것들에 저항하는 고독한 투쟁과 싸움도 불가피하다는 전투적인 예찬론이 개진되었다.[38] 결혼의 조건으로 순결이 더 이상 운위되지 않는 청년세대의 풍조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일방적 비난의 논조는 자취를 감추었다.[39] 한 칼럼에서는 결혼과 구분되는 교제를 가리키는 말로 '데이트'라는 외래어를 도입하여, 자율적 만남과 교제의 기술을 촉구하기도 했다.[40] '데이트'는, 결혼의 전제로 이해되고 도입되었던 '연애' 개념의 누적된 강박을 덜어냄으로써, 남녀교제의 공식적 허용을 욕망하는 청년세대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했던 새로운 언표였다.

연애와 결혼을 구분 짓는 사유의 비등은 성의 규율과 젠더 성역할에 대한 개혁의 의지로 진전되기도 했다. 사춘기의 성을 설명하는 칼럼에서는 규율과 훈육의 논조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객관적인 기술만이 개진되었다.[41] 성에 대한 규율의 역사를 고찰하는 칼럼에서는 원시 사회에서부터 인류의 성과 결혼 양식이 바뀌어 온 과정을 피력하면서, 일부일처의 당위적 요청과 그렇지 않은 현실의 괴리가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미결정의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42] 성의 규율과 성역할에 대한

---

36) 위의 글, 98쪽.
37) 김종원, 「우리 세대의 연애와 결혼」, 『여원』, 1961년 3월. 102-105쪽.
38) 안동림, 「연애예찬」, 『여원』, 1961년 3월, 106-109쪽.
39) 김용호, 「정조불신론시비」, 『여원』, 1961년 3월, 114-117쪽. 이 칼럼은 혼전 성관계가 자체가 그 관계의 동기를 문제 삼는 우회적 논법을 구사하면서, "정조를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여러분들의 그 현명한 판단 속에 우리들은 슬픈 단념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라는 경계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40) 전규태, 「데이트의 자유와 기술을 주라」, 『여원』, 1960년 8월, 234-237쪽.
41) 한국남, 「청춘의 생리적 욕망」, 『여원』, 1961년 3월, 110-113쪽.
42) 서재관, 「무엇이 성을 구속했는가.」, 『여원』, 1961년 3월, 126-129쪽.

강고한 당위의식은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권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직접적이었다. 1961년 4월에 마련된 가풍에 대한 특집에서는 유아독존적 가장의 횡포에 구속된 가풍을 배제하고 "가장의 개성과 주부의 개성을 절충한 가풍을 형성하라"[43]는 주장이 개진되었다. 민주정치시대의 이름으로 전제군주시대의 습속 개선을 역설한 이 특집에서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서 우러나오는 미덕의 계승과 민주적 가풍을 요청했다.

4.19에서 비롯된 젊은 세대의 자신감은 이처럼 낭만적 사랑의 견고한 이상과 가부장적 체제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키며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갔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 청년 세대의 사고를 지탱하는 문화적 경험이 이전 세대의 그것과 판연히 달랐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1960년의 신세대는 어린 시절 해방과 전쟁을 경험했고 실존주의와 미국 대중문화에 노출되어 자랐으며, 독립 국가 체제의 국민교육 제도 아래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우리말로 학습하고 자랐던 세대였다. 이들은 더 이상 제국의 언어나 식민지의 열등감에 억눌리지 않은 채, 투명한 이론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학습한 세대였다. 실제 역사나 경험과 유리된 무시간적 정의의 관점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이념을 학습한 이들은, 자아의 자율성이라는 무균질의 관념에 입각하여 공동체적 질서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젊음의 순수성이 새로운 사회 윤리로 의미를 부여받는 문화적 기류 속에서, '성=사랑=결혼'의 이상적 관계만을 강요하는 기성의 규율은 그 억압적 성격이 폭로되면서 저항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젊음이 요구하는 연애의 자율성이 자아라는 절대성의 기치와 결합하며 새롭게 의미화 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회, 역사적 경험이 아니라 투명한 이상에 입각한 신념과 저항은 현실 사회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갖추기 어려웠다.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랑의 탐색과 관계의 요청은

43) 곽종원, 「봉건적 가풍과 새로운 가풍」, 『여원』, 1961년 4월, 143쪽.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집단적이고 물리적인 토대를 모색해야 했다. 하지만 4.19 직후에 팽배했던 청년 세대의 자신감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청년세대의 탈낭만적이고 신이상주의적인 사고가 구체적인 현실과 접목되기 이전에 군부 쿠데타를 등에 업은 군사 정권의 국가주의적 담론이 새롭게 힘을 얻으면서 청년세대의 목소리는 급격하게 물러서게 된다.

3. 주부의 국민화와 혼종적 근대성

3.1. 주부, 혹은 국민으로서의 여성성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권력이 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 청년 세대의 발언은 점차 '국가'와 '단결'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담론에 자리를 내어 주게 된다.[44] 1962년 후반부터 『여원』의 특집에는 성, 사랑, 결혼의 문제에 치우쳤던 과거와 달리 사회 정치적 문제의 비중이 현격하게 높아진다. 1962년 10월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가」라는 특집에서는 한국사회의 빈부격차와 빈곤의 문제, 가난과 정치의 관련성 등이 다루어졌으며, 1963년 5월 「우리의 구원은 단결이다」 특집에서는 국가 사회적 단결의 필요성이 역설되면서 이러한 단결의 일 주체로서 여성이 지닌 인간적 융화의 힘이 강조되었다. 1963년 박정희가 후보로 나선 대통령 선거의 전망과 한일회담 문제 등을 다룬 「오늘의 제문제」(1963년 10월)나 관료제와 정치의 문제를 다룬 「난세의 인생과 철학」(1964년 7월), 가족계획과 내핍 등의 문제를 다룬 「여원이 제창한 미해결의 장 10제」(1965년 10월) 등등은 직접적으로 정치 기획과 국가 담론을 여성 담론 내로 끌어들인 예들이다. 「일본상품을 막아라」(1965년 9월), 「인력 수출 그 안과 밖」(1966년 9월), 「물가가 오르고 있다」(1967년 10월) 등의 특집이 가정경제 운영과 외화벌이

44) 1960년대 전반 『여원』의 담론이 세대론에서 국가주의 담론으로 이동함은 김복순의 앞의 글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에 대한 내조의 차원에서 여성의 국민적 임무를 역설했다면, 「여성과 매스코뮤니케이션」(1962년 9월), 「한국여성의 근대화」(1964년 3월) 등의 특집에서는 취미 생활과 교양, 교육, 가족 등 대중적인 매체와 제도, 습속의 차원에서 여성이 지니는 사회적 위상과 현실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들 칼럼에서는 사적 경험 이전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이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레퍼런스로 기능했다. 여성은 사랑과 결혼 등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소득 수준에 맞추어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사회정의의 의식이 작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독여야 했다. 4.19의 청년 세대가 갈망했던 '자아'의 요청은 이제 "사회정의에 입각한 생활의 합리화"라는[45] 의미로 그 함의를 채우게 되었다. '국가', '국민', '사회', '정의' 등의 단어가 담론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국민이 깨야 한다"는 슬로건이 횡단하는 가운데, 여성에게는 어린 2세로서의 국민을 양육할 양육 주체이자 살림 주체로서의 의무가 무엇보다 강조되었다.[46]

여성의 진정한 자리는 '가정주부'의 자리였다. 직장여성에 대한 논의들도 다수 게재되었지만 '여성의 직장은 결혼에 이르는 하나의 과도기'[47]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직장여성들은 허영과 사치에 빠져들고 부자 엘리트 신랑감을 쟁탈하려 싸우는 대신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자각"하며 사회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질타에 가까운 의견이 개진되었고,[48] 개인적 행복보다는 공적 가치를, 이익보다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라는 언명이 사회적 공명을 얻었다.[49]

"여성의 참다운 사회참여는 가정의 주부로서 발휘"[50]되어야 했다. 직

45) 조기준, 「무엇이 근대화인가」, 『여원』, 1963년 3월, 65쪽.
46) 이만갑, 「한국적 가족제도라는 멍에」, 『여원』, 1964년 3월, 66-69쪽.
47) 서재관, 「직장여성론」, 『여원』, 1963년 3월, 146-151쪽.
48) 송건호, 「직장여성론」, 『여원』, 1964년 2월, 98-101쪽.
49) 김형석, 「우리는 불운하지 않다」, 『여원』, 1965년 3월, 134-137쪽; 주태익, 「여성으로서의 인간선언」, 『여원』, 1965년 3월, 100-105쪽.
50) 최석채, 「여성의 사회참여」, 『여원』, 1964년 3월, 77쪽.

장여성들의 허영을 질타하는 한 칼럼은 이 같은 "한국 여성의 자질"도 민족이 받은 수난이라는 집단적 역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51] 따라서 한국 여성들은 노라와 같은 가출이 아니라 수난의 역사를 바로잡는 집단적 가치의 재인식을 통해 문제를 극복해야 했다. 사회집단의 관점에서 여성의 올바른 위치는 주부의 자리였다. 심지어 가장의 술과 폭력, 신경질도 개인이 아니라 사회 탓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언술의 지배 아래서[52]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망들은 공적 가치의 규율 아래 회부되고 귀속되어야 했다.

국가주의적 집단성의 기표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여원』의 편집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963년 2월호부터 『여원』은 「아기의 365일」(2월), 「폐물이용」(3월), 「밀가루, 빵, 국수」(5월)와 같은 생활정보들에 「특집」이라는 명칭을 달고 도드라지게 배치하기 시작했다. 1965년경부터는 목차에서 「의식주」지면이 더욱 전진 배치되며, 생활정보 특집의 수가 더욱 증가했다. 생활정보는 가계부와 더불어 원색으로 구성된 별책 특별부록으로도 제공되어 잡지의 판매경쟁에서 한 몫을 했다. 국민으로서 여성에게 부여된 '참다운' 사회적 역할이 가정주부로 못 박힐 때, 여성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이자 덕목은 생활과 살림을 지혜롭게 영위하는 일로 앞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주의적 기획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국가 발전 기획의 내부로 통합함으로써 근대적 경험으로서의 여성의 삶을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려 했다.

이 같은 담론의 배치 아래에서, 성, 사랑, 결혼과 같은 개인적 경험은 더 이상 자율적일 수 없었다. 4.19의 열기가 지나가면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여원』의 논조는 다시 보수주의적 관점으로 회귀한다. 결혼과 구분되는 연애의 영역을 존중하는 언급도 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제스처에 가까운 데 지나지 않았다.[53] 1960년대 중반 발표된 「연애와 결혼의 미학」

51) 송건호, 앞의 글.
52) 방기환, 「고달픈 가장의 비애」, 『여원』, 1965년 1월, 140-143쪽.
53) 장경학, 「여성, 오전의 문명」, 『여원』, 1965년 1월, 116-121쪽; 양주동, 「청춘을 파

의 필자는 연애는 결혼의 전주곡이며 사랑과 성이 일치하는 것이 연애, 결혼의 참된 미학이므로 육체와 감정을 아끼고 절약하는 데 참된 연애와 결혼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역설했다.[54] 참된 사랑은 서로 독점할 수 있는, 또 독점되어지는 사랑이어야 했으며, 상호독점과 상호헌신의 결실로서의 참사랑은 외부에 드러나기보다 깊이 숨기는 데 오히려 큰 미덕이 있는 것으로 강조되었다.[55] 일시적, 유희적 연애와 순수한 연애, 정화된 연애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식이[56] 부활했고, "청춘의 진정한 승리는 「정신의 우위성」에 설정 설시"[57]되어야 한다는 정신적 사랑의 숭고함이 다시금 강조되기 시작했다.

사랑에 대한 재정의는 여성의 역할과 직분에 대한 논의로 쉽게 연계되었다. 1960년대 중반 『여원』에서 여성의 고유한 특징은 직장 여성이든 가정주부이든 '불안'한 것으로 정의되었으며,[58] 이 같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결혼이 이루어져야 했다. "일단 결혼하면 그것으로써 운명은 결정"[59]되는 여성에게는 자신의 세계를 바로 찾고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하는 소양을 기르며,[60] "어디까지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뚜렷이" 자각하는 일이[61] 무엇보다 긴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성의 본분이 가정주부로 인식된 만큼, 연애담론은 자연스럽게 주부담론에 흡수되어 언술되었고,[62] 올바른 주부/아내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자녀의 심리 변화를 살펴 세대 간의 충돌을 조정하

괴하지 말라」, 『여원』, 1965년 3월.

54) 원형갑, 「연애와 결혼의 미학」, 『여원』, 1965년 3월, 128-133쪽.

55) 김은우, 「애정은 독점되는 것인가」, 『여원』, 1961년 11월, 154-159쪽.

56) 편집부, 「현대연애강좌1」, 『여원』, 1961년 4월, 230-241쪽.

57) 양주동, 「청춘을 파괴하지 말라」, 『여원』, 1965년 3월, 122-127쪽.

58) 편집부, 「특집: 여성의 불안」, 『여원』, 1962년 3월, 97-104쪽. 1960년대 『여원』이 여성의 정체성을 불안으로 규정했음은 송인화의 앞의 글에서 먼저 언급된 바 있다.

59) 편집부, 「특집: 여성의 불안」, 『여원』. 1962년 3월, 99쪽.

60) 박협현,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불안」, 『여원』, 1962년 3월, 99-101쪽.

61) 김은우, 「취직, 직장에 대한 불안」, 『여원』, 1962년 3월, 97-99쪽.

62) 송인화, 장미경은 앞의 논문에서 1960년대 연애담론은 주부담론의 하위담론으로 배치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 남편의 비서이자 조언자 역할을 진행하며, 밤에는 요부로 변신하여 남편을 충족시키고, 가정의 정보부장, 명의사, 평화조정자, 영양관리 감독관, 내무대신, 요리연구가 등 만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었다.[63]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성은 천부적, 본능적, 초월적인 사랑의 능력을 지닌 존재였으며, 주부로서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여성의 아름다운 '덕'으로 강조되었다. 주부는 가장의 고달픈 역할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지혜가 필요했고,[64]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 시련을 견디어 내"어 가정불화를 막아야 했다.[65] 앞에서 살폈듯,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육체적 봉사도 강조되어서 "낮에는 숙녀가 되고 침방에서는 요부가" 되어야 한다는 언급은 이 시기 『여원』에서 매우 흔히 발견되는 언술이었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성적 불만을 가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것으로 못박혔다. 여성의 성불만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다룬 한 좌담회에서는, 권장할 것은 못 되지만 이혼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부가 남편과 같이 혼외 관계에서 불만을 해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일갈했다.[66] 인내야말로 가정평화를 위한 주부의 미덕이었으며, 심지어 주부의 직업은 살림에 방해가 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배척되곤 했다.[67]

이와 같은 언술을 통해 사랑과 성이라는 사적인 영역은 국가 발전의 기획 내부로 통합되어 갔다. 성, 사랑, 결혼과 같은 개인적 경험은 더 이상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동질적인 문화적 상징체계 속에 통합되었으며, 이데올로기적 사회담론과 구조의 일부로 편성되었다. 근대적 경험으로서의 성, 사랑, 결혼은 개별성의 차이를 향유하기보다는 획일적이고 동일한 것으로 구성되어 갔고,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과 배타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공적 영역의 일부로서 소환되고 편입되어 갔다.

---

63) 정충량, 「가정평화와 주부의 역할」, 『여원』, 1965년 1월, 128-131쪽.
64) 방기환, 「고달픈 가장의 비애」, 『여원』, 1965년 1월, 140-143쪽.
65) 강영수, 「주부로 인한 불화와 해결책」, 『여원』, 1965년 1월, 144-147쪽.
66) (좌담)「성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원』, 1963년 10월, 146-153쪽.
67) 강영수, 앞의 글, 144-147쪽.

3.2. 反전통화의 원심력과 재전통화의 구심력

연애담론이 주부담론 아래 종속되고 살림의 지혜와 모성을 강조하는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근대적 사랑의 담론은 전통의 이념과 독특한 모순적 접속 관계를 이루게 된다.[68] 전통에 대한 『여원』의 기본적 태도는 다분히 부정적이었다. 대부분의 칼럼에서 전통적 가족제도와 봉건적 사고구조는 근대가 척결해야 할 극복의 대상이었다.

삼강오륜의 강요와 출가외인의 대우는 "한국적 가족제도라는 멍에"의 이름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69] 혈통을 중시하고 다산을 존중하며 여성을 멸시하는 사고와 봉건적 혼인제도는 무너져야 할 과거의 유산으로 배격되었다.[70] 특히 축첩의 전통은 반드시 씻어야 할 악습으로 인식되었다.[71] 축첩은 근대 가족의 형성을 방해하는 고질적 장애 요인이자 당대에도 현존하는 남성의 폭력성과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의 산물로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72] 여성의 무교양이나 모성집착과 같은 부덕들도 그 원인이 전통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언급들이 자주 등장했다. "한국여성에게 나쁜 점이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된 데는 고질적인 전통사회에 우선 책임이"[73] 있다고 치부되었고, 편집광적이고 맹목적인 자식

---

68) 연구대상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근대화 권력과 재전통화 담론의 접속은 김은실, 김은하, 최경희 등의 선행연구에서 먼저 언급되었다. 단, 선행연구에서 재전통화의 측면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이 글에서는 근대/전통이라는 대립적 사고의 실제에 더 역점을 두며 이 대립적 사고가 재전통화와 어떻게 만나는가를 살폈다.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 8호, 1999년 9월, 79-100쪽; 김은하, 앞의 글; 최경희, 앞의 글

69) 이만갑, 앞의 글, 66-69쪽.

70) 이해영, 「가족제도는 무너지지만」, 『여원』, 1965년 1월, 122-127쪽; 이태영, 「평등과 자유의 결혼」, 『여원』, 1966년 8월, 172-176쪽; 강인숙, 「두 다리로 대지에 서다」, 『여원』, 1966년 8월, 188-191쪽; 김경옥, 「플라토닉에서 취미로」, 『여원』, 1966년 8월, 193-202쪽.

71) 1961년 8월 특집 「왜 축첩을 하는가」, 1962년 10월 종합기사 「그늘진 여자의 일생, 첩」 등은 축첩의 전통을 신랄하게 공격한 사례들이다.

72) (특집)「결혼하면 남성은 어떻게 변하는가」, 『여원』, 1961년 10월, 78-92쪽.

73) 오화섭, 「여성, 사랑의 고행자」, 『여원』, 1965년 2월. 94-99쪽.

사랑도 전통적 가족제도가 여자에게 주는 유일한 역할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었기 때문이라는 언급들도 등장했다.[74] 이처럼 여성에게 부여된 갖가지 부덕의 표상들이 전통의 탓으로 전가될 만큼 관습적 전통은 근대가 척결해야 할 기본적 장애이자 극복의 대상이었다.

전통의 극복과 근대화가 강박에 가까운 시대적 요청이었던 만큼, 서구는 그 구체적인 면모 이전에 우월한 발전의 모델로서 무의식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우리 것과 서양 것을 비교하는 관습은 한국사회를 진단하는 일종의 관습이었다. 현실 사회문제를 다루는 『여원』의 특집들은 한국의 현재를 진단하는 칼럼들을 서두에 배치하고, 후반에는 한두 편씩 서양의 사례를 예로 들며 근대적 선진 문화의 모델로 삼곤 했다.[75]

서양의 성, 사랑, 결혼 풍속이나 가정의 실례들은 『여원』이 언제나 관심을 기울이는 소재들이었다. 미국 가정의 내부를 관찰 기록한 연속기사가 기획되었고,[76] 한국여성과 구미 여성을 비교하는 칼럼이 실리는가 하면,[77] 20세기의 여인상으로 퀴리 부인, 엘레노아 루즈벨트, 펄 벅, 마리안 앤더슨, 클레멘타인 처칠, 리즈 테일러 등등이 여성성의 이상으로 특집화되기도 했다.[78] 특히 미국 여성에 대해서는, 풍문과 달리 "부화경조하고 향락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이 강조되었다. 미국 여성들의 검소함과 합리성, 시민적 자질이 배워야 할 대상으로 긍정되었으며,[79] 구미여성과의 비교 아래, "한국 여성들은 얌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못나서 그

74) 이해영, 「가족제도는 무너지지만」, 『여원』, 1965년 1월 122-127쪽.
75) 예컨대, 1963년 5월 〈우리의 구원은 단결이다〉의 경우, 「공통토론, 우리도 단결할 수 있다」, 「인간적 융화에 앞장서는 여성의 힘」, 「단결을 위한 사고방식의 개조」, 「한국사상의 파쟁과 단결의 교훈」 등의 칼럼 다음에 「단결로 국난을 극복한 서양사의 교훈」이 첨부된 사례, 1966년 7월 게재된 〈아내의 바람〉 특집에서 전반적 진단과 남성, 여성 각자의 경험담, 개인적 논설 다음에 쥰 콜우드의 「미국가정의 고민」을 삽입한 예 등이 그것이다.
76) 김귀현, 「아메리카의 가정: 소녀의 포부는 결혼」, 『여원』, 1962년 1월, 168-171쪽; 김귀현, 「아메리카의 가정: 사생아를 잉태한 처녀들」, 『여원』, 1962년 3월, 84-89쪽.
77) (특집) 「한국여성에 대한 불평불만: 여성비교 동서남북」, 『여원』, 1960년 3월, 82-116쪽.
78) (특집) 「20세기 세계의 여인상」, 『여원』, 1963년 10월, 242-312쪽.
79) 김용장, 「파라독시칼한 소극성」, 『여원』, 1960년 3월, 89쪽.

런 것"[80]이라는 자학적 진단이 등장하곤 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근대는 이처럼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열의 관계로 배치되었고, 삶의 다양한 문화적 층위들이 '우리 것'과 '서양 것'이라는 공간성을 통해 담론화되고 위계화되어 정치적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제도적, 물질적으로 부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근대화의 강박 속에서도 서구의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의 풍토에 대한 반감은 여전했다. 아프레걸을 표적으로 삼아 구성되었던 1950년대의 재전통화 담론은 1960년대에도 여성의 소양이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미국 여성은 무분별하고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지속되었고, 남녀평등이니 여권신장이니 하여 남녀의 본분을 잊는 태도나 독신주의를 주장하고 직업 세계에 투신하는 여성의 태도는 이성의 융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비난받았다. 집을 나간 노라(인형의 집)와 비교하여 동양적인 정서와 풍류로 남성과의 융화를 추구했던 황진이의 태도가 칭송되었으며,[81] 규방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학문과 부덕을 쌓은 신사임당의 삶이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했다.[82] 1963년 2월에 마련된 전통론 특집에서는 올바른 민족 문화 전통의 선택적 계승과 민족적 주체성의 회복을 강조하면서,[83] '옳은 판단력'이라는 차원에서 '정숙미의 전통'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84]

근대의 기치 아래 전통의 관습은 근본적으로 배격과 극복의 대상이었지만, 이처럼 부분적으로 선별되고 발명된 것으로서 일부의 전통은 탈역사적 조정을 관통하여 본질화되었다. 이 선별과 발명의 한 구심점이 여성의 덕성이었다. 새롭게 호명된 전통은 인내와 관용 등 전래의 정신적 가

80) 문제안, 「여성비교 동서남북」, 『여원』, 1960년 3월, 87쪽.
81) 주태익, 「여성으로서의 인간선언」, 『여원』, 1965년 3월, 100-105쪽.
82) 애용해, 「사임당과 오늘의 여성」, 『여원』, 1965년 5월, 146쪽. 신사임당의 재조명에 대해서는 권보드래·천정환, 앞의 책 505쪽 참조.
83) 김두헌, 「새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원』, 1963년 2월, 80-83쪽; 이해남, 「전통 그 애착과 반항」, 『여원』, 1963년 2월, 84-87쪽.
84) 조풍연, 「정숙미의 전통」, 『여원』, 1963년 2월, 92-95쪽.

치를 여성 고유의 특성으로 앞세웠다. 현모양처의 내적 자질로서 인내와 사랑, 희생과 관용은 여성만이 지닌 본원적인 미적 자질로 강조되었다. 여성의 사랑은 헌신적이며 순교적인 거룩한 사랑으로 특징지어졌으며, 희생적인 여성의 사랑은 악을 선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 커다란 등불로 미화되었다.[85] 겸손과 인내, 희생과 관용 등이 여성성의 이름으로 전통적인 '덕성'과 결합했고,[86] 여성을 매개로 한 사적 영역에서 선별적으로 재호명된 전통은 공적 근대성의 물질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위무하는 가치로서 근대의 일부로 새롭게 통합되었다. 여성은 이제 산업전선의 피로에 지친 남편을 위무하고 근대화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존재로서 물질적 근대성의 결핍을 채우는 정신적 가치의 자리로 올라가야 했다. 이처럼 전통으로 재정의된 여성의 미덕은 민족정체성과 한국인이라는 동질성의 확인을 통해 변화된 정치 체제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균열을 극복하고 현재를 합리화할 수 있는 유효한 틀이었다.

그리하여 물질적, 제도적 근대화와 이를 보완하는 정신적 가치로서의 전통이라는 한국적 발전 모델[87] 속에서 여성은 가족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존재로 자리매김 되어 갔다. 전통 비판과 전통 호명이라는 상호 대립적 담론은 여성이라는 매개고리를 통해 이율배반적으로 근대화의 기치와 접속했던 것이다. 전통비판과 개발주의가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종의 원심력으로 작동했다면, 여성성의 가치로 재호명된 덕성은 물질적인 근대의 비인간적 질주를 통어하는 구심력으로 여성을 강박했다. 성, 사랑, 결혼이라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의 영역과 자본주의 체제를 토대로 한 공적 근대의 영역은 여성성의 조정을 통해 갈등 없이 접속했다. 자본주의적 개발 내셔널리즘의 박차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적이고 내밀한 자율성의 영역은 그렇게 전통적인 여성성의 재창조와 의미화를 통

85) 오화섭, 「여성, 사랑의 고행자」. 『여원』, 1965년 2월, 94-99쪽.
86) 정충량, 앞의 글 ; 박영준, 「애정의 본질」, 『여원』, 1960년 9월, 185쪽.
87) 김은실은 앞의 글에서 이를 '제도적인 근대화'와 '가치에서의 전통'으로 명명했다.

해 물질적 근대화와 평화롭게 결합했다. 달리 말하면 성, 사랑, 결혼의 근대화는 '자유'에 선행하는 '덕성'의 호명을 통해 국가주의적 기획 안에 포섭된 셈이다. 이 덕성은 여성의 본질로서 규범화됨으로써 개발 내셔널리즘의 가부장성에 복무했다. 그리하여 『여원』이 역설한 사랑과 결혼의 이념은 개발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라는 원심력과 이를 보완하는 전통적 정신의 구심력이라는 가상의 토대와 접속함으로써 산업전사로서의 남성과 내조자로서의 여성 표상을 재생산했으며, 근대화의 규범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 정초해갔다.

4. 낭만적 사랑의 위선과 자유부인의 재의미화

4.1. 자유부인, 혹은 젠더화된 근대성의 잉여

앞에서 살폈듯 1960년대 초반에 유래 없이 비등했던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국가주의적 담론의 부활과 더불어 급격히 줄어들었다. 4.19의 격동이 1-2년 지나면서 『여원』의 담론은 미혼의 청년 세대가 아니라 '결혼 후' 세대로 관심의 초점을 이동했다. 청년에 대한 기획들도, 1960년 8월 「반항하는 청년을 보라」, 1963년 8월 「젊은 세대의 발언」[88] 등이 청년 세대의 사회문화적 소견을 중심으로 기획된 것과 달리, 1965년 3월에 기획된 「청춘에게 바치는 특집」에서는 "청춘을 파괴하지 말라"와 같은 훈육조의 논조가 주조를 이룬다. 청년은 이제 건설의 주체로부터 훈육의 대상으로 이동한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기능은 '가정주부'라는 공감대에서 알 수 있듯, 1960년대 중반부터 『여원』의 집중적 관심사는 결혼 후의 사적 영역, 특히 기혼 여성의 생활과 역할에 맞추어졌다. '연애의 자유'와 같은 미혼세대 초미의 관심사였던 과거의 논점들은 이제 전 시대와 같은

88) '우리는 왜 불만스러운가'라는 부제를 둔 이 특집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요구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다루어졌다.

전투력을 지닐 수 없을 만큼 상식화한 셈이다.

연애보다 결혼 후 여성의 역할에 초점이 놓이면서 1960년대 『여원』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또 한 가지는 주부의 불륜, 즉 외도의 문제였다. '자유부인'과 '치맛바람'이라는 어휘는 이 시기 『여원』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어휘군에 속한다. 유부녀의 일탈이나 과잉된 사회활동을 가리키는 이 용어의 유행은, 주부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사적 공간의 주체로서 주부가 지니는 권한이 증대한 만큼, 이 권한과 역할에 대한 경계의 시선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드러낸다.

1968년에 실린 한 기사에 따르면, 1967년 한 해 동안 총 이혼건수는 2548건이었으며, 남편 측이 이혼상담을 요청한 예가 그 중의 41.3%였고, 남편이 제기한 이혼 사유의 24.2%가 아내의 부정이었다고 한다. 반대로 남편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을 제기한 경우는 49.9%였다.[89] 상담자 일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해도, 당대의 보수적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여성의 부정에 대한 감각과 풍문은 상당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 중반부터 『여원』은 각종 기사와 보도, 수기를 통해 외도의 문제를 다루었고, 외도 기사들은 특히 「바람난 나들이의 행방」, 「죄지은 여인의 가는 길」, 「어느 자유부인이 남긴 문제」와 같이 선정적인 제목을 통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여성 외도의 형태를 배은망덕형, 홧김보복형, 규방고독형, 제비농락형 등으로 유형화하는가 하면,[90] 실제 외도의 다양한 사례들이 법률가의 보고나 경험담의 형식으로 게재되었고,[91] 외국의 사례나 문학, 역사적 일화들이 거론되기도 했다.[92] 1966년 7월 『여

89) 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본 이혼」, 『여원』, 1968년 12월, 137-138쪽.
90) 이병용, 「법정에 선 자유부인들」, 『여원』, 1966년 7월, 184-189쪽.
91) 김일두, 「죄지은 여인의 가는 길」 1966년 8월, 324-328쪽; 나석호, 「어느 자유부인이 남긴 문제」, 『여원』, 1969년 4월, 346-351쪽; 박천직, 「직장에서 불붙은 중년 바람의 후유증」, 『여원』, 1969년 12월, 344-349쪽; 박혜숙, 「자유부인은 늘어나고 있다」, 『여원』, 1968년 6월 등등.
92) 이철범, 「에로스의 반역」, 『여원』, 1966년 7월, 190-195쪽; 쥰 콜우드, 「미국가정의 고민」, 『여원』, 1966년 7월, 212-217쪽; 최병화, 「빗나간 큣피드의 화살」, 『여원』, 1966년 7월, 224-228쪽.

원』은 여성의 외도를 특집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10여 편에 달하는 칼럼이 실린 기획의 규모는 여성의 외도에 대한 매체의 관심 정도를 짐작케 해 준다.

외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다분히 불균등했다. 남편의 외도는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공공연한 인정을 받았다. "집안사람 운명에 불행을 주지 않는 한도 안에서는 (…) 본색을 부정할 수는 없다"[93]거나, 외도는 "남성이란 장난꾸러기들의 일시적인 객기(客氣)여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94]다는 생각이 좌담과 같은 공식적인 논의에서 거리낌 없이 제출될 정도로, 남성의 외도는 암묵적 용인의 대상이었다. "남편은 아내 외의 다른 여성과의 추한 관계를 맺어도 그리 큰 죄 의식을 느끼지 않"[95]는 것이 일반화된 현실 속에서, 오히려 남편의 외도는 아내의 불찰이니 아내가 매력을 가꾸어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되곤 했다.[96]

그에 반해 아내의 외도는 계, 춤, 성형수술과 더불어 경제적 여유와 권태에서 비롯된 타락의 행태이자 사회악의 표상으로[97] 맹렬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야 했다. 맞바람의 경우가 아내의 탓으로 돌려지는 것은 물론,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사례를 보도하는 경우도 관용을 베풀며 기다려주지 않은 아내의 탓으로 돌려지는[98] 현실에서, 유부녀의 외도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가볍지 않았다. 심지어 한 특집기사는 보호받을 만한

93) (좌담)「못 믿을 손 남성의 마음?」, 『여원』, 1966년 8월, 303쪽.
94) (종합기사)「부정과 패륜의 재평가」, 『여원』, 1964년 10월, 130쪽.
95) 이숭녕, 「남편론」, 『여원』, 1968년 6월, 128쪽.
96) "남성의 외도엔 반드시 그 동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반성하라."라는 것이야말로 이 시기 남성의 외도에 대한 지배 담론의 핵심이었다. (종합기사)「부정과 패륜의 재평가」, 『여원』, 1964년 10월, 130쪽. 그 밖에 남편의 외도 원인을 아내에게서 찾는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드이 있다. 이하준, 「바람의 징후적 발견법」, 『여원』, 1960년 9월, 196-201쪽; 김은우, 「축첩의 케이스별 진단」, 『여원』, 1961년 8월, 106-113쪽; 정충량, 앞의 글.
97) 여원편집부, 「바람난 나들이의 행방」, 『여원』, 1969년 2월, 156-161쪽.
98) 박천직, 「직장에서 불붙은 중년 바람의 후유증」, 『여원』, 1969년 12월, 344-349쪽.

가치가 있는 정조와 그렇지 않은 정조를 나누면서, 아내 자신의 재산, 남편을 도와주는 능력, 가사의 수완과 품성, 유혹하기 얼마나 어려웠느냐에 따라 여성의 성적 가치를 값으로 매기기도 했다.[99] '사랑은 하나다. 애정도 하나뿐이다'라는 전제 아래, "지중하고 엄격한 의미에서 아내의 부정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매체의 기본적 태도였으며,[100] '하나뿐인 애정'의 이념은 오직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자유부인은 젠더 불평등에 대한 저항과 여권신장의 차원에서 다르게 이해되기도 했다. 자유부인의 범람 현상을 진단한 한 필자는 전후(戰後)의 자유부인과 당대의 자유부인을 다음과 같이 차별화했다.

> 무지나, 막연한 호기심에 의해 저질러졌던 종전 후의 자유부인 선풍과는 다르게 자신의 분명한 욕구가 「바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종전 후와는 다른 의미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자유부인의 범람, 그것이 이 땅에서 새로운 모랄에 각성하고 한없이 위축되었던 여권을 끝없이 신장해가는 전위들이라고 할까. 그래서 거리에서, 극장에서, 교외에서…… 하여튼 온갖 오락시설을 무대로 남김없이 정열을 발산하는 요염한 자유부인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 여권의 성장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둘 수밖에—. // 한마디로 자유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각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사회에 대한, 가난에 대한, 또는 성에 대한 불만이던 간에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고민을 그 바탕에 갖고 있는 것이다.[101]

전후의 자유부인이 막연한 호기심과 무지에서 비롯된 일탈의 이름이었다면, 당대의 자유부인이란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에 대한 저항의 결과라는 것이 이 필자의 진단이다. 기실 이 시기 중산층 주부들은 과거의 현모

99) 장경학, 「유부녀의 위험한 관계」, 『여원』, 1966년 7월, 178-182쪽.
100) 박기원, 「부정은 용서할 수 없다」, 『여원』, 1966년 7월, 208쪽.
101) 박혜숙, 「자유부인은 늘어나고 있다」, 『여원』, 1968년 6월 202-204쪽.

양처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들은 가계 소비와 교육 등 가정 내 대소사의 결정권을 지닌 사적 영역의 권력자였으며, 한편으로는 전후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습득한 자아실현의 이상과 사회 진출의 욕망을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로 수렴하고 충족시켜야 했던 굴절된 존재였다. 이들은 남편에게도 정조 즉, 일부일처 이념의 실질적인 실현을 요구할 줄 아는 지식과 교양을 갖춘 존재였으며, 남편의 외도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한편, 자신의 굴절된 이상과 소망을 반추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들이었다. 실제로 위 칼럼의 필자는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급증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를 "굴종만을 미덕으로 알아 온 한국 주부들이 자기의 인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나가는 도정을 표현한 것"[102]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 불륜의 원인을 여성의 개인적 도덕성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 혹은 남편의 무관심에서 찾는 관점들도 조심스럽게 등장했다. 자유부인 발생의 원인이 남편의 태도, 봉건적 문화 관습, 사회적 불안감, 서양 풍조에 대한 무비판적 동조, 매스콤의 횡포 등에서 다각적으로 진단되는가 하면,[103] 남편의 무관심과 부주의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조장한다는 분석 아래, "아내로 하여금 스스로를 지킬만한 (…) 자부심을 갖도록" 남편의 배려가 필요함이 역설되기도 했다.[104] 남편이 가정 밖에서 음란을 즐기는 버릇이 일상화된 현실에 대한 여성의 불만은 그러한 풍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언술의 노출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문제제기였다.[105] "가정의 모랄이 남녀동권이라는 기반 위에 선 것이라면 정조관에서도 남녀가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106]는 주장도 나타났다.

---

102) 위의 글, 202쪽.
103) 김종문, 「아내의 바람」, 『여원』, 1966년 7월, 220-222쪽.
104) 최병화, 「빗나갈 큐핏드의 화살」, 『여원』, 1966년 7월, 224-228쪽.
105)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남성의 외도 특권화를 문제 삼은 사례이다. (좌담)「못 믿을 손 남성의 마음?」, 『여원』, 1966.8, 303쪽. ; 김종문, 「아내의 바람」, 『여원』, 1966년 7월, 220-222쪽.
106) 이숭녕, 「남편론」, 『여원』, 1968년 6월, 129쪽.

특히 불륜을 겪은 당자의 수기들은 이론적인 논의와 다른 생생한 경험과 성찰을 드러냄으로써 추상적인 비판 담론과는 다른 사고의 가능성을 제출했다. 아내의 부정을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 외도의 길에 빠졌던 한 남성은,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오히려 아내에 대한 갈망을 부추겼음을 고백하면서, 파탄보다는 용서와 협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107] 사회적 체면만을 의식하는 남편의 용서가 오히려 끔찍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선택한 한 외도한 부인의 수기는 이혼의 파경을 평화로운 긍정으로 담담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108]

이 같은 수기들은 차이를 배제하고 동질성을 강요하는 담론의 정향과 달리, 개인적 경험의 이질성과 그에 따른 사고의 차이들을 드러냄으로써 지배 담론에 균열을 가했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의 자유부인은 확실히 1950년대의 그것과 달랐다. "아프레걸은 태생부터 비정상적이며 가정과 국가 외부에 위치하는 존재인 반면, 자유부인은 일그러진 정상성이며 가정과 국가 내부에 속한 존재"[109]라는 한 연구자의 지적 속에서 '자유부인'이 지칭하는 대상은 1960년대의 여성에 더 적합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비석의 주인공과 같은 1950년대 자유부인이 아프레걸을 모방하는 존재였다면, 1960년대의 자유부인은 제도의 불균등과 불완전성을 드러냄으로써 그 '일그러진 정상성'을 반증하는 경계인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자유부인은 단순한 권태, 사치, 허영의 산물이 아니라, 남녀 불평등에 기반한 젠더화된 근대성의 모순을 드러내는 문제적 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자유부인의 일탈 속에는 성욕과 물욕을 긍정하는 자본주의화된 세계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성역할에 대한 저항과 거부의 의지가 숨어 있었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매체의 시선 내에서는 이 같은 저항과 거부의 의지가 의식적인 담론의 표면을 서서히 육박해가고 있었다.

---

107) 이상묵, 「애정과 증오의 고백」, 『여원』, 1966년 7월, 201-205쪽.
108) 김미리, 「애정 없는 가정의 파국」, 『여원』, 1966년 7월, 196-200쪽.
109) 권보드래 • 천정환, 앞의 책, 475쪽.

4.2. '취미 연애'의 대두와 낭만적 위선의 노출

결혼 관계의 공고함을 위협하는 자유부인의 풍문은 '성=사랑=결혼'의 이념을 추구하는 숭고한 사랑 이념의 와해와 무관하지 않았다. 앞 장에서 살폈듯, 이미 4.19 세대에서부터 연애와 결혼을 직결시키는 이상주의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고, 연애담론이 국가주의적 주부 담론에 종속되고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팽배해진 이후에도 성, 사랑, 결혼이 하나의 관계 안에 일치할 수만은 없음은 이제 공공연히 공유되는 관념으로 자리 잡는다. 순결과 희생을 강조하는 숭고한 사랑의 이념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강압적 논리로 구사되지 못했다. 연애와 결혼의 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칼럼들이 여전히 성, 사랑, 결혼이 일치하는 관계를 이상적인 모델로 장려하고는 있었지만,[110]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과의 거리를 인정하는 제한된 맥락을 전제했다.

1964년 10월, 남녀 작가, 교수, 학생 6인을 대상으로 하여 당대의 애정 풍토를 검토한 종합기사 「부정과 패륜의 재평가」는 변화된 연애 인식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연애와 결혼의 분리" 문제에 대하여, 보수 여성작가 박화성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안수길 : (…) 원칙론으로는 연애와 결혼은 분리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나 실제 문제로는 분리되고 있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
> 김진만 : (…) 일반론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결혼할 상대를 골라서 연애를 시작해야 한다면 연애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 연애란, 결혼의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이에서도 싹틀 수 있고, 이성(理性)이나 타산(打算)을 넘어 서서 발전될 수 있습니다. (…) 결혼에까지 이르지 못한 불행한 연애를 성(性)의 유희(遊戱)니, 불장난이니 해

110) 다음과 같은 예가 대표적이다. 양주동, 「청춘을 파괴하지 말라」, 『여원』, 1965년 3월, 122-127쪽; 원형갑, 「연애와 결혼의 미학」, 『여원』, 1965년 3월, 128-133쪽.

서 놀리고, 빈정대고, 꾸짖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점잖은 일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김세영 : (…) 이상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애란 일생에 꼭 한 번만 하란 법은 없다.111)

애인 간 애정 표현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들의 대답은 매우 개방적이었다.

김진만 : 한계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결국은 사랑하는 두 사람만이 알아서 지을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세영 : 성숙한 남녀라면 본인의 판단에 맡길 것이고 구태여 주위환경에 제약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윤흥렬 : 애인간의 애정 표현은 애인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

김정자 : (…) 결국 애정표현의 방법에는 한계나 우열(優劣)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112)

응답자들의 관점에서 연애와 결혼은 더 이상 영원성과 숭고의 이념에 귀속되지 않았다. 연애는 당면한 삶의 일부이자 개인의 소양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삶의 문제적 모멘트였다. 근대 초기 유학생 인텔리들에 의해 처음 자유연애가 주창된 이래, 1950년대의 대중화, 일반화의 격동을 거쳐, 1960년대 연애는 이제 더 이상 근대를 상징하는 관념적 이상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의 일부로 변화한 것이다. 생활의 일부로 변화한 '연애'는 더 이상 운명적 한 사람만을 염원하는 숭고하고 정신적인 가치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사랑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영원불변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은 될 수 있어도 결혼의 조건으로서의 사랑은 될 수가 없

111) (종합기사)「부정과 패륜의 재평가」, 『여원』, 1964년 10월, 1-123쪽. 응답자 중 안수길은 작가, 김진만, 김세영은 각각 고대교수와 이대교수이고, 김정자, 윤흥렬은 각각 이대, 서울대 4학년 학생이다.

112) 위의 글, 125쪽.

는 것"113)이라는 실제적 감각이 융기했다. 성, 사랑, 결혼이 일치하는 관계와 육체의 억압, 희생을 강조했던 숭고한 사랑의 이데올로기는 1960년대 중반에는 이미 현격하게 후퇴했다. 「새해 여성에게 주는 충고 30장」의 한 챕터로 "한번쯤 실패하고 일어서라"는 실연 경험의 격려가 등장할 만큼 연애는 이제 평범한 일상의 일부로 변해갔다.

식민지 이후 연애의 역사를 검토한 1966년 8월의 한 칼럼에서는 한국 연애사의 흐름을 "플라토닉에서 취미로"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114) 해방 전에 유입되어 플라토닉으로 유행했던 연애의 풍토가 전쟁 후 윤리적 혼란기를 거쳐 당대에는 취미 연애로 이동했다는 것이 이 칼럼의 진단이다. 이 진단에 따르면 당대의 연애는 남녀가 어울린 집단 속에서 피차간 다수의 상대를 만나는 교제, 파트너가 바뀔 수 있는 교제, 데이트라고 불리는 가벼운 형식의 교제였다. 진중한 무게가 덜어진 이 같은 만남의 풍토를 이 필자는 '취미 연애'로 일컬었다. 청년 남녀의 연애는 이제 영원성과 숭고의 강박을 벗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진단의 이면에는 경박한 만남을 염려하는 경계의 의도가 존재했지만, 이 글의 필자는 이 같은 변화가 '사회 진보의 결과'라는 언명을 망설이지 않았다.

도시와 농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 시기와 비교할 때 사랑과 결혼의 자율성이 증대하고 상식화된 것은 확실했으며, 그에 따른 상처와 실패의 경험도 축적되었다. 자유부인 논란, 이혼의 사회문제화와 같은 이슈들이 대두한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경험적 회의의 결과였다. 1968년 12월 『여원』이 제기한 이혼문제 특집에서는 이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이혼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사랑의 배신이다"115)라는 반대론에 맞서,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이 없는 관계라면 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116) 만만치 않았다. 자유의사로 맺어진 부부가 이혼할 수도 있다는 생

113) 고정훈, 「여인십이장: 결혼의 조건」, 『여원』, 1967년 8월, 175쪽.
114) 김경옥, 「플라토닉에서 취미로」, 『여원』, 1966년 8월. 193-202쪽.
115) 김남수, 「하느님이 정해 준 짝 풀 수 없다」, 『여원』, 1968년 12월, 140-143쪽.

각은 영원한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사랑의 이념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며 그 허위성을 드러냈다.

이처럼 생활 속에 누적된 경험의 축적은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새로운 논리의 등장을 야기했다. 1967년 '여인십이장'이라는 타이틀로 연애와 결혼의 문제를 다룬 칼럼을 연재했던 필자 고정훈은 상당한 지면에 걸쳐 결혼이란 사랑이 아니라 타산의 결과임을 집요하게 논파했다.

> 문제는 추악한 남성들의 에고이즘이 법률이나 관습으로 율법화(律法化)되어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진 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들은 그들의 동물적인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원한 사랑의 순결이라는 어마어마한 도그마를 조작해 냈고, 또 이러한 도그마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우리들은 결혼을 신성시하고 절대시하도록 강요되고 있읍니다. (…) 결혼이란 결코 고상한 사랑을 조건으로 삼은 연애의 연속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타산적인 내용의 사랑을 조건의 하나로 삼고 있는 공동생활을 인식하고 이러한 공동생활의 〈art〉를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킴에는 눈물겨운 피땀의 노력(arm)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인 것입니다.[117]

일련의 연속 연재를 통해 이 필자는 순결하고 신성한 사랑의 이념이 지니는 위선적 성격을 공들여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순결하고 신성한 사랑의 이념은 실은 남성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도그마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러한 도그마가 정립한 낭만적 사랑과 결혼의 신화이란 궁극적으로 타산의 산물일 뿐이었다. 그의 비판의식은 비단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남성들의 허위적 가면을 들추어내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처녀성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장 좋은 조건 하에 결

116) 이석봉, 「사랑의 순결을 위하여」, 『여원』, 1968년 12월, 148-151쪽.
117) 고정훈, 「사랑을 창조하는 예술」, 『여원』, 1967년 9월, 140-143쪽.

혼하기 위한 상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과감한 언급을 통해, 고정훈은 여성들의 순결의식 역시 그 심층에 타산의 속성을 숨기고 있는 위선의 일종이라고 못박았다. 연애라는 근대적 사랑이 상식의 하나로 일반화된 중산층 사회의 현실감각은, 이제 戰後 수립된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은폐했던 젠더 억압의 가부장적 폭력성과 그에 편승한 위선적 편의주의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의식하는 데까지 도달한 것이다.

1960년대 자유부인 담론은 이처럼 성적 순결성과 혼인제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또한 제기되는 인식의 흐름 위에 존재했다. 개인적 자질이나 소양의 탓으로만 귀결되지 않고 남녀 본성의 문제나 결혼제도의 문제로까지 뻗어나간 1960년대 자유부인 논의는 그런 점에서 단순한 보수 이데올로기의 비등으로만 보기 어렵다. 자유부인 현상과 이혼의 유행 이면에는 성적 순결성과 혼인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들이 숨어 있었으며, 선도적인 여성 담론 매체로서 『여원』이 주도한 연애와 혼인담론의 내부에는 낭만적 사랑의 위선에 대한 의식/무의식적인 자각과 담론의 통합적 권력에서 벗어나는 이질적 사고와 경험들이 복잡하게 횡단했다.

그러나 주도적 이데올로기에서 이탈한 이질적 사고들은 위선적 이데올로기의 내밀한 구조나 이를 산출하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토대에 대한 탐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여인십이장'의 문제제기가 명확한 결론 없이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는 데 그치며 그 개선을 위한 각성을 권하면서 마무리되는 데서 알 수 있듯,[118] 다른 질서의 가능성은 요원했다.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에 여성 스스로가 소망을 일치시키는 자발적 동화가 오히려 지배적인 가운데, 순결한 사랑의 신화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가부장 부재의 불안의식보다는 강력한 가부장에 대한 의존심리가 훨씬 더 안정적인 생존을 보장해 주었던 셈이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나 「아빠 안녕」 등 신파형 불륜 영화의 대대적 성공[119] 속에는 제도화된 체제의 모순에서 벗어나려는 욕망과 이를 떨쳐

118) 고정훈, 「새로운 자극의 풍토」, 『여원』, 1967년 12월, 194-197쪽.
119) 이영미, 「신파성 부활과 모성신파」,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버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주체들의 이중적 시선이 숨어 있다. 욕망과 연민의 이중적 감성이야말로 자유부인과 불륜, 이혼과 같은 제도 밖 존재와 행위에 대한 당대 여성들의 (무)의식적 공통감각이었던 것이다.

5. 성과학/성담론과 존속의 알리바이

5.1. '성'이라는 도발, 혹은 근대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성

창간 시절부터 『여원』은 성 담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연애와 욕망, 순결의 관념, 성교육의 문제 등등 섹슈얼리티는 종합지에서 다루기 어려운 여성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선도적인 여성잡지로서 『여원』은 이 같은 담론을 주도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1957년 후반부터 1959년 3월까지 장기간 연재되었던 유스테이스 • 쳇서 박사의 「두려움 없는 사랑」은 성 행위의 과정과 기교, 성적 결함과 치료법 등을 매우 자세히 소개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섹슈얼리티 기획이었다. 라디오 외 방송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했던 戰後 사회에서 여성지는 일반 대중들이 '야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유력한 장이었다.

1960년대에도 『여원』은 성에 관한 기사들에 상당 지면을 할애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사춘기 특집, 청춘 특집, 연애 특집 등에서 성 칼럼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고,[120] 별도의 기획 없이도 성지식과 성교육, 성도덕을 다룬 칼럼들이 심심치 않게 실렸다.[121] 1960년대 중반에는 '책속의 책

2016, 381-415쪽.

120) 예컨대, 1960년 3월 「종합연구, 번민하는 사춘후반기」편에서는 「섹스 어필에 설레는 순정」, 「성의 이해와 인생승리」가 실렸고, 1960년 8월 「특집, 반항하는 청춘을 보라」에서는 김기우의 「섹스의 배설론」이 삽입되었으며, 1961년 3월 「특집, 요즘의 연애는 패륜한가」에서는 한국남의 칼럼 「청춘의 생리적 욕망」이 함께 실렸다.

121) 다음과 같은 칼럼들이 그 예이다. 임방현, 「성, 성교육, 성도덕」, 『여원』, 1963년 2월,

부부생활 카운슬러'라는 특별 란을 마련하여 성 관련 상담과 정보를 집중적으로 게재했고, 이후로 자유부인, 이혼 문제 등과 더불어 성에 대한 논의들은 더욱 늘어났다.

1960년대 초반 『여원』의 성 담론은 여성의 순결을 역설하고, 성에 대한 경계의 자세를 촉구하는 논리를 위주로 펼쳐졌다. 때문에 사춘기나 혼전 청춘들의 성 욕망을 다룬 칼럼들은 종종 자위행위를 권장했다.[122] "과도하지만 않으면 자위는 조금도 해가 없다"[123]는 논리 아래, 이 행위는 숭고한 사랑의 윤리가 은폐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과학의 하나로서 은근한 사회적 승인을 얻었다. 앞 장에서 살폈듯 성은 남편의 욕망에 부응하는 아내의 덕목의 하나로도 강조되었다. 성지식과 기교를 갖추는 일은 남편을 외도의 길에서 구하고 산업 전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내조의 일부로서 여성이 국가에 복무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였다. "술집 여성보다는 서비스가 좋고 쇼우걸보다는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면서도 아기를 잘 기르고 살림 잘하는 주부"[124]가 되는 일이야말로 "영원히 젊은 애인으로서 아내가 울지 않고 사는 길"이라는 관념 아래에서, 성지식은 여성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밀한 교양의 일부로 인식되어갔다.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섹슈얼리티 논의는 한층 더 도발적으로 과감해졌다. "육의 윤리가 곧 사랑의 윤리이며 사랑의 윤리가 곧 육의 윤리"라거나,[125] 성은 인간의 자연스런 본능적 욕구이며[126] 올바른 부부생

174-177쪽; 장경학, 「정조의 법사회학」, 『여원』, 1963년 8월, 88-95쪽; 김규태, 「용서할 수 있는 정조」, 『여원』, 1967년 1월, 238-243쪽.

122) (종합연구)「번민하는 사춘후반기: 성의 이해와 인생승리」, 『여원』, 1960년 3월, 234-238쪽; 김기우, 「쎅스의 배설론」, 1960년 8월, 238-241쪽; 한국남, 「청춘의 생리적 욕망」, 『여원』, 1961년 3월, 110-113쪽.

123) 김기우, 앞의 글, 241쪽.

124) 목영자, 「산부인과 여의의 임상적 어드바이스: 영원히 젊은 아내로 사는 지혜」, 『여원』, 1970년 2월, 362-371쪽. 비슷한 언급은 대단히 많다. 일례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라건영, 「성생활의 조화」, 『여원』, 1967년 10월, 354-356쪽. 김홍수, 「성에 대한 소극성 비판」(한국여성의 근대화 특집), 『여원』, 1964년 3월, 90-93쪽. "아내의 적극적 「기교」는 그만큼 남편을 행복하게 할 것이며 그 행복은 곧 아내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활을 위해서는 부부애와 성애가 원만히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127] 생각은 물론, 인류의 역사는 섹스의 역사이며 부부의 연대에는 고귀한 인내심이나 넓은 이해심 따위가 아니라 육체적 쾌락이 중요하다는 과감한 주장들이[128] 나타나는 것이다. 순결에 대한 강박도 느슨해졌다. "정조를 지킨다는 것이 반드시 도덕적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허용이나,[129]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을 떠난 성행위도 용인될 수 있다는 사유가 공식적으로 언명되기도 했다.[130] 부부간 성생활의 조화를 촉구하는 한 칼럼에서는 "성교가 반복되면 점차 정신적인 결합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헤어질 수 없는 정도가"[131] 된다는 논리로 육체가 정신의 토대일 수 있음을 언표했다.

여성의 성욕망에 대한 긍정도 이루어졌다. '부부생활 카운슬러'란을 마련했던 기획자는 "성생활은 남성에게는 불가결이나 여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틀린 생각을 버려야 겠다"는[132] 전제로 연재를 시작했다. 이 칼럼은 "여성의 성적 흥분이나 만족이 남성에게 의해서만 유도된다고 생각하는 오해"[133]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리드를 지지하는 언술을 내세우기도 했다. 여성의 향상된 지위를 논했던 한 기사에서는 "성행위를 통해 쾌감을 남성과 대등하게 느낀다든가, 행위를 향락한다든가 하는 일" 즉, "여성의 쾌감을 비로소 인정"하는 데서 여권의 향상을 발견했으며, 여성의 자아는 이 같은 쾌감의 발견을 통해 발굴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134]

이처럼 도발적으로 과감해진 성 담론 속에서, 성에 경도된 세태 풍조를

---

125) 원형갑, 「연애와 결혼의 미학」, 『여원』, 1965년 3월, 128-133쪽.
126) 구임회, 「성지식에 대한 외면에 대하여」, 『여원』, 1967년 1월, 161-163쪽.
127) 장문경, 「성지식의 부족에 대하여」, 『여원』, 1967년 3월, 178-180쪽.
128) 고은, 「결혼의 절대성은 깨어졌다」, 『여원』, 1968년 12월, 146-147쪽.
129) 김태규, 「용서할 수 있는 정조」, 『여원』, 1967년 1월, 238-243쪽.
130) 김태규, 위의 글. ; (종합기사)「부정과 패륜의 재평가」, 『여원』, 1964년 10월, 122-123쪽.
131) 라건영, 「성생활의 조화」, 『여원』, 1967년 10월, 354-356쪽.
132) (부부생활 카운슬러)「완전한 결합을 위한 너와 나의 가교」, 『여원』, 1967년 5월, 343쪽.
133) (부부생활 카운슬러)「남편이 본 아내의 불감증」, 『여원』, 1967년 8월, 294쪽.
134) 이영희, 「다듬어진 땅 더 기름지게」, 『여원』, 1966년 8월, 192쪽.

근대화의 부작용으로 지적하는 시각들도 대두되었다. 이지러진 경제성장과 함께 개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불만이 증대해가고 현대의 무력감이나 앞날에 대한 절망감이 늘어가면서, 그에 대한 일종의 배출구나 회피책으로서 말초적인 성의 만족에 경사되는 경향이 증대되었다는 진단 등이[135] 그것이다. 한 영화배우는 영화의 에로틱한 묘사방법이 꼭 필요한가라는 취재자의 질문에 대해 두 개체의 어쩔 수 없는 거리를 매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최후의 전달 수단은 접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섹스란 잃어버린 시대의 원형을 찾는 궁극적인 동시에 무의미한 동작인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한 방법이었다"[136]라는 그의 발언은, 성을 근대에 대한 저항의 양식으로 인식했던 영화인들의 일(一) 태도를 단적으로 압축하고 있다.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이나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 등 성애를 다룬 것으로 '악명' 높았던 문학 작품들에 대한 논조의 변화는 성을 근대에 대한 저항의 양식으로 사고하는 태도의 등장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이다. 흥미롭게도 1960년대 중반과 후반 이 작품들에 대한 평가는 현저하게 이동한다. 1966년 7월 장경학은 유부녀 부정의 문학적 사례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의 예를 제시했다. 이 사례에서 필자가 강조한 것은 그것이 자살로 이끌어지는 파탄의 행위라는 점이었다.[137] 같은 호에 「에로스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페드라」와 「보바리 부인」의 사례를 언급한 이철범 역시 개인적인 성격특징 속에서 주인공들의 열정을 규정하고, 폭주하는 에로스적 열정이 파멸로 치닫는 사례로서 이 작품들을 특징지었다.[138] 그러나 2년 후인 1968

135) 홍사중, 「공허와 탈출의 체바퀴」, 『여원』, 1969년 3월, 168-170쪽.
136) 이우경, 「섹스란 잃어버린 시대의 원형?」, 『여원』, 1970년 1월, 290-291쪽.
137) 필자는 그나마 문학평론가의 평가를 빌어, 남성의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봉건귀족계급 지적 주부들의 운명과, 자본주의 경제의 농촌 침략 결과라는 의미를 이들의 사례에 부여하지만 한국 유부녀의 경우는 그와 다르게 평가한다. 봉건도덕 같은 특효약 외에 유부녀의 부정행위를 막는 처방은 어렵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장경학, 「유부녀의 위험한 관계」, 『여원』, 1966년 7월. 178-182쪽.

년 11월에 발표된 민희식과 정병조의 글에서는 사뭇 다른 논조가 발견된다. 민희식은 섬세한 여성 내면성의 문제로 작품에 접근했다. 엠마 보바리의 외도는 비현실적인 행복을 상상하는 상승감정과 연관된 것으로, 저속한 육욕의 세계가 아니라 꿈을 쫓는 행위였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139] 한편, 「차탈레 부인의 사랑」을 분석한 정병조는 성 묘사를 올바른 인간관계를 되찾아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의 산물로 가치화했다. 로렌스의 성 묘사는, 기계문명의 병폐와 오랜 세월 지속된 기독교 문명의 억압이 만든 기형적인 인간상에 대한 반응의 하나였으며, 피의 부름을 따르는 자연을 통해 이상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140]

작품 평가의 이 같은 변화는 성을 시대에 대한 저항의 양식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태도의 틈입을 확인해 준다. 성을 근대의 위선과 치부를 드러내는 인간 내부의 자연으로 재인식하는 의식적 경향성은 이처럼 문학과 영화 등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 사회의 일부에서부터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다.

5.2. 낭만적 위선의 균열과 부정을 가장(假裝)한 존속

증폭되는 성 담론은 표면적으로 가부장적 국가주의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의 표준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섹스', '성 개방'이라는 어휘가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고 1967년경부터는 '프리 섹스'라는 어휘도 도입되었으며, '성 해방'에 대한 언급들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담론들이 실제로 개방된 사회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성 인식의 변화와 개방적인 풍토, 자유로운 사고의 등장을 논하는 많은

---

138) 이철범, 「에로스의 반역」, 『여원』, 1966년 7월, 190-195쪽.
139) 민희식, 「플로베르 〈보봐리 부인〉 : 무의식의 정열」, 『여원』, 1968년 11월, 134-136쪽.
140) 정병조, 「DH로렌스 〈채털리 부인의 사랑〉 : 아름다운 성의 주장」, 『여원』, 1968년 11월, 140-142쪽.

칼럼들이 일부일처제의 위기를 논하였고, 결혼의 제도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동서양 역사 속에서 기이한 성과 결혼의 풍속을 추적하고, 한국의 고전 속에서 성적 구속에 대한 반발이나 일탈, 저항의 사례들을 찾아내는 예는 이 시기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다룬 『여원』의 기사에서 가장 쉽게 발견되는 기술방식이다. 다음의 예는 일부일처제의 불완전성을 논하는 칼럼들의 논의가 구성되는 방식을 잘 보여 준다.

> (가) 우리의 전통과 오늘의 현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전개될 우리 사회의 가능성에 비추어서 나는 아직 일부일처 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이 아직은 다른 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 일부일처 제도를 절대화해서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타당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 제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언제나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타부가 너무도 많다. 그 중에서도 성과 결혼에 관한 타부가 아직도 우리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이 타부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계속 무너져야 할 것이다.141)

> (나) 성의 문제는 어느 시대건 항상 체제적인 사회의 본질에 뭣보다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이다. (…) 섹스와 에로스의 체제적인 것으로의 예속이 어쩌면 과거의 한국 여성처럼 철저했던 민족은 더 없을 것이다. (…) 통일신라 이후 하강하기 시작한 섹스의 마이너스 곡선은 개화기에 약간 상승기세로 굽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섹스와 에로스는 본연의 것이요 수치도 또 천한 것도 아니라는 인식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데 성의 위기는 차라리 플러스적 가치 곡선으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지 모른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주장한 프리 섹스의 경향이 젊은이들 틈에 물드는 시기로서 먼훗날 사가들은 바로 지금 이 시점을 잡을 것이 분명하기 때

141) 현명학, 「새 시대에 위협받는 일부일처제」, 『여원』, 1969년 7월, 132쪽.

> 문이다. 섹스 알리바이의 암흑만큼 프리 섹스의 암흑도 클 것이며 이 위기를 타개하는 한 위대한 모랄이 마냥 아쉬워만지는 시대랄 것이다.142)

(가)와 (나)는 모두 역사적 상대성에 비추어 성 제도가 다양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현재의 성 제도는 절대적 진리를 지니거나 완벽하게 안정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나)의 경우는 불평등한 성인식으로 인한 여성의 굴절된 삶과 원한의 역사를 피력하고, 그와 같은 역사를 성의 "마이너스 곡선"로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의 길고 긴 억눌린 역사를 설명한 끝에 필자가 내리는 결론은, 억압의 역사만큼이나 개방과 자유의 문화도 암흑을 기약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타부의 타기를 촉성하는 (가)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기의 제약들을 문제시하지만, 실제로 필자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감각'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지지한다. 금기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길고 긴 분석과 비판은 결국 현재를 긍정하고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성을 조작하는 사회관계와 역사를 성공적으로 분석하고 상징화했다는 명분 아래, 현재의 구조와 욕망을 인정하고 지속시키는 힘을 용인하는 이 같은 논의의 구조는 실제로 오히려 성정치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조했다. "오늘날의 섹스" "자유부인" 등과 같은 가상의 적을 전제하고 일부의 풍토를 과장되게 부풀리며 상상의 저항을 보충함으로써, 이들은 현행의 위계와 질서가 장애 없이 재현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성, 사랑, 결혼이 하나의 관계 속에 일치하는 낭만적 사랑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제 현실의 다종한 관계와 사고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차이들을 이 동질적 이미지의 모델 속에 병합함으로써 이들 성 담론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보호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성 담론이 제기하는 저항적 목소리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제도를 유지하는 데 복무하는 존속의 알

142) 이규태, 「천년을 주름잡은 금욕령」, 『여원』, 1968년 12월, 183쪽.

리바이에 다름 아니었다.

실제로, 성 담론의 비등은 가부장적 국가주의의 기획과 연동되기도 했다. 한일회담과 월남전 참여, 인력수출 등을 강행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개발 내셔널리즘을 추구했다. 산업전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남성은 안락한 가정과 서비스를 통해 위로받아야 했으며, 여성의 신체는 이들 남성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어야 했다. 이와 동시에 국가적 기획으로 실시된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은 양적, 질적으로 적정 수준의 국민을 생산/재생산하는 장소로서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했다.[143] 불감증과 성적 기교, 각종 병리, 임신과 피임 등의 지식은 그런 점에서 가부장적 국가주의에 복무하는 신체의 생산을 위해 마련된 젠더화된 장치에 다름 아니었다. 성 과학은 또한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본원론적 과학 진단을 가장하여 이성애적 성역할 구획과 가부장제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사회 조건들을 은폐하고 이를 환원불가능한 본질로 정의함으로써[144] 개발 민족주의가 추구한 근대의 은폐된 가부장성에 복무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 속에서 성 담론이 지배 이데올로기 내부에 빚어낸 미시적 균열들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성의 순결만 요구하는 논리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제기, 성이 단순한 개인적 욕망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조건과 연동되어 있으며, 평등, 인권, 민주주의적 가치와 결부된다는 암시들은 낭만적 사랑이 추동한 새로운 근대적 가부장제의 이율배반을 직시하게 했다. 이와 같은 담론의 과정에는 증류된 순결주의와 자유로운 사랑의 선택이 병립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적 자각들이 제기되었고, 이는 곧바로 현모양처주의와 순결주의의 위기와 연동되고 있었다.

---

143) 가족계획과 여성 신체의 도구화에 대해서는 김은실, 앞의 글 참조.

144) "남성의 성욕은 충격적이오 무책임하며 저돌적이어서 일단 욕망이 일면 앞뒤를 살피지 않고 만족을 얻을 때까지 끝내 돌진하려 한다" 김기우, 「쎅스의 배설론」, 1960년 8월, 241쪽. "여성의 성욕은 또 소극적이다. 반대로 남성의 성욕은 여성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동시에 이성에의 접근욕도 여성에 비해서 대단히 강하다" 한국남, 「청춘의 생리적 욕망」, 『여원』, 1961년 3월, 111쪽.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제기가 실제로는 존속의 알리바이로 기능하는 현실에서, 『여원』의 섹슈얼리티 논의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아직 남녀의 성역할이나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진전되지는 못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중산층 가정의 이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다. 잡지가 주요 타겟으로 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던 대도시 중산층의 가정이었으며, 따라서 문제제기는 오로지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추상적 감각과 순수 이론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확실한 것은 1960년대 『여원』의 성 담론이 1950년대 마련된 낭만적 사랑 이념의 균열이 증폭하는 심화과정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낭만적 위선을 강요하는 개발 내셔널리즘의 가부장성과 근대화의 젠더 불균등성이 노출되고 자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노출과 자각은 전대로부터 계승한 '연애'의 추상적 이념이 일련의 현실적 경험 속에서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재인식된 결과이기도 했다. '연애'라는 근대적 사랑의 이름으로 성, 사랑, 결혼을 하나의 관계 안에 통합했던 낭만적 위선의 균열은 이처럼 그 내부로부터 발생했다.

지식인 엘리트와 중산층 가정에서 발현된 이 균열의 감각은 무시간적 이상주의를 배후로 한 1970년대 청년문화의 문제제기를 촉발하는 매개의 하나가 된다. 1970년대 제기되는 청년문화의 저항의식이 1960년대가 산출한 문제의식과 어떻게 접속하며 근대화의 가부장성 및 젠더 문제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또 지배적 담론의 정향이 문학적 형상 속에서는 어떻게 굴절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나는지는 앞으로 더욱 탐구해야 할 과제이다.

6. 결론

이상에서 1960년대 『여원』의 성, 사랑, 결혼에 관한 담론들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초반, 『여원』은 4.19의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청년 세대의 발

언을 통해 '자아'와 '자유'의 이념에 바탕을 둔 '연애'의 자율성을 주창했지만 실제 역사나 경험과 유리된 무균질적인 이상은 군사 권력에 의해 국가주의가 부활하면서 곧바로 쇠잔해 갔다. 이후 『여원』은 군사 정권의 개발 내셔널리즘에 힘입어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기반하여 주부 역할을 강조하는 담론에 역점을 두었다. 여성의 희생을 토대로 한 가부장적 개발 내셔널리즘이 추진되는 한편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자유부인에 대한 담론이 비등했다. 1960년대의 자유부인은, 전후의 그것과 달리, 성욕과 물욕을 긍정하는 자본주의화 된 세계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성역할에 대한 저항과 거부의 의지를 함축했으며, 자유부인 담론의 이면에는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은폐한 위선과 타산에 대한 적나라한 자각이 노출되고 있었다.

한편, 『여원』이 독보적으로 실어날랐던 성 담론은 본원론적 과학진단을 가장하여 성역할의 구획과 가부장적 국가주의를 보조했다.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과감하고 도발적인 성격을 가속화했던 성 담론은 표면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표준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상의 저항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반발을 보충함으로써 오히려 지배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데 복무하는 존속의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그러나 성 담론이 제기한 미시적 균열들과 낭만적 사랑의 위선적 타산에 대한 의식적 자각은 아프레걸론, 자유부인론으로 집약되는 가부장적 통제의지와 그로부터 빚어진 숭고한 사랑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1970년대 청년문화의 저항의식을 매개하는 촉매의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은 고찰들은 자료 고증을 통해 근대적 여성성의 한국적 형성과정에 대한 기존의 앎을 더 조밀하고 실제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구분하지 않고 동질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기존 『여원 연구』의 탐색 결과에서 나아가, 1960년대의 차이를 보다 더 세밀화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1960년대 『여원』의 연애담론은 전반에는 상대적으로 공격적, 후반에는 보수적이라는 진단이 우세했으나, 고찰의 결과, 공격적 성격은 4.19를 전후한 1-2년 내외의 짧은 시간에 제한되었으며,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보수적 이념의 강박이 점

차 와해되는 점진적 과정을 보여 준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국가주의적 주부담론의 지배적 자장 속에서, 부모가 중개하는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 연애 자유의 인식이 일반화되고, 데이트라는 어휘가 새롭게 도입되며,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의 위선과 타산에 대한 의식적 자각이 대두하는 일련의 시간적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낭만적 사랑의 이념에 충실했던 50년대의 '아프레걸-자유부인'과 달리 낭만적 위선의 균열을 노출했던 60년대 '자유부인'의 양면적 성격이나,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표면적으로 진보적이며,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던 성 담론들이 실제로는 이길 수 있는 적을 생산함으로써 현재의 지속을 보조하는 존속의 알리바이로 기능했다는 것도 이 글이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다.

그러나 『여원』의 담론은 어디까지나 제도 교육을 수혜하고 일정 수입을 보장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도시 중산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성격을 지닌다. 동일한 시간대 속에서도 도시와 농촌, 계급과 계층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른 시간성을 지닌 삶의 문화가 펼쳐졌으며 근대적 삶의 스펙트럼이 동질적이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젠더, 계급, 도농 등의 차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주변부의 목소리를 살펴보고, 지배 담론과 실제 경험의 간격들과 이 간격이 빚어낸 다양한 경험과 사고들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권보드래 • 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김성보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60년대』, 창비, 2016.

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여원 연구 : 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경미 역,『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9.

2. 논문

김복순, 「전후 여성 교양의 재배치와 젠더 정치」, 『여성문학연구』 1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 8호, 생각의 나무, 1999년 9월, 79-100쪽.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77-209쪽.

김지영,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 연재소설 연구 - 연애담론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47-384쪽.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8, 대중서사학회, 2007, 387-416쪽.

송인화, 「1960년대 『여원』 연재소설 연구: 연애담론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93-336쪽.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142-181쪽.

최경희, 「1960년대 여성지를 통해 본 '교양의 레짐' 연구: 『가정생활』, 『여상』, 『여원』에 나타난 전통, 국민, 감정의 동원체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8, 우리문학회, 2015년 10월, 89-112쪽.

_____, 「1960-1970년대 여성지를 통해 본 근대화의 젠더 양상 연구: 『여원』, 『여상』, 『주부생활』에 나타난 근대화의 혼종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년 12월, 313-329쪽.

.

Abstract

Patriarchal Nationalism of Development and Exposure of Romantic Hypocrisy

: a study on the love discourse of the woman's *magazine Yoewon* in the 1960s

Kim, Chi-young

Issued from the 1955, *Yeowon* became the most popular woman's magazine in Korea until it ended to be issued in 1970. In this paper, I searched the love discourse of the magazine to learn how love, marriage and sexuality of Korean woman were discussed and regulated under the trend of Korean development nationalism in the 1960s and how the woman's stance was reflected in the modernization system of the period.

In the early 1960s, the generation of 4.19 asserted freedom of love out of the belief on the theoretical concept of the self and freedom, which the generation learned as a favorable ideal of democracy though they could not have experienced the ideal within their environment. However, as the military regime reinforced, young generation's assertion was retreated, and *Yeowon* started to emphasize on the role of a homemaker based on a patriarchal family system, so that the modernization of love and marriage was integrated into the nation's development plan by renaming the virtue of traditional morality as woman's intrinsic value. On the other hand, as the concept of 'yeonae'(love) was generalized and the experience of love was accumulating, there arisen a scepticism on the idea of sublime and lasting love. With this scepticism, the

divorce rate was increased, and the free-wife's discourse was seething fiercely. The discourse on free-wives(Chayu-buin) of the 1960s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1950s, in that it was generated with the tendency for some women to determine to reject the gender role given to a woman within the trend of capitalism which revealed outspoken affirmation on the desire for sex and material. In the background of the free-wife's discourse, thoughts and experiences that deviated from the integrated authority of the discourse traveled across intricately, while the violent nature of man's patriarchism and the expedient nature of woman's opportunism riding on the very patriarchism were revealed and exposed breaking through the shield of ideology of romantic love.

Key words : the 1960s, woman's magazine, love discourse, Yoewon, patriarchy, Modernity, Sexuality discourse, nationalism, 4.19, Youth culture, sexuality, Free Woman, Apre-Girl, Affair, re-traditionalism, women culture

■ 본 논문은 2017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